

## 2009년 인쇄문화대상 · 직지상 수상자 확정

- 경영관리부문 박제덕 (주)삼원프린테크 대표이사
- 기술부문 오성상 친구대그래픽아트미디어과 교수
- 직지상 정흥택 출판도시활판공방 공방장
- 진흥부문 최은철 현대씨앤피(주) 대표이사
- 특별부문 임인호 선생(금속활자장 이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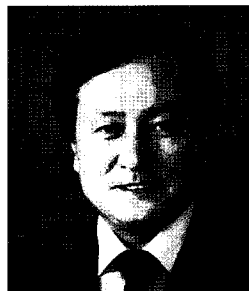
경영관리부문 수상자 \_  
박제덕  
(주)삼원프린테크 대표이사

ERP시스템 구축 등  
선진인쇄 경영모델 제시

(주)삼원프린테크 박제덕 대표이사는 1974년 인쇄와 인연을 맺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길 인쇄인으로 인쇄 및 출판문화 발전에 헌신해 왔다. 삼원프린테크는 인쇄물의 기획-출력-인쇄-후가공에 이르는 전 공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특수라벨 인쇄시설도 갖추고 고급 인쇄물을 생산해 오고 있다.

신뢰받는 회사 도약을 위해 2002년 ISO9001과 2005년에 ISO14001을 취득했으며 사무관리에서 생산까지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ERP시스템도 구축했다.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 등 인쇄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며 인쇄인들의 화합과 공동발전에 기여하였고 대한사격연맹 부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화관광부 장관표창,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감사장, 한국은행 총재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진흥부문 수상자 \_  
최은철  
현대씨앤피(주) 대표이사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업계 공동발전 기여

최은철 현대씨앤피(주) 대표이사는 1967년 한일원색에서 인쇄기술을 습득하고, 20여 년 동안 인쇄기술자 및 전문가로서 인쇄업계 발전에 힘을 쏟았다. 1988년 현대씨앤피(주) 설립 후 연

10% 이상의 성장발전으로 현재 연 110억 원 이상의 매출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라벨스크래치 테이프(인몰드라벨)제품의 특허획득 및 시장 보급, 2009년 2월 인쇄업계 최초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22000 인증취득으로 끊임없는 기술개발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웃돕기 성금전달, 모교 소년소녀 가장돕기, 장학금 기탁 등 불우이웃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쇄업계의 발전과 친목도모를 위해 성수회 회장, 인경회 회장, 인록회 회장을 맡았으며,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 인쇄연합회 대의원, 대한인쇄문화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기술부문 수상자 \_  
오성상  
신구대그래픽아츠미디어과 교수

후진양성하며  
다양한 인쇄 신기술 연구

부경대학교 인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92년부터 신구대그래픽아츠미디어과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오성상 교수는 한국인쇄학회 부회장, 지식경제부 사진(ISO/TC)전문위원회 위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평가위원, 문화체육관광부 TF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교수는 이처럼 후진 양성과 인쇄문화산업 발전, 장애인기능올림픽 수훈 등으로 대통령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오 교수는 그동안 화상 제판, GRAPHIC ARTS&BOOK BINDING 전문가 되기, Colour & Quality, 인쇄일반, 디지털 시대의 그래픽 아츠 표현 등의 저서를 냈으며 수십 종의 인쇄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21세기 한국 인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디지털 교정 솔루션 세미나, 해외 거주 인사에 비친 인쇄선진국의 인쇄기술 산업 동향, 인쇄업계의 현실과 대안, 인쇄와 통신의 만남, 위기의 인쇄산업 돌파구는 있는가, 인쇄산업의 전망, 디지털 시대의 환경 변화에 따른 인쇄 정보산업의 향후전망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외부 강연을 가진 바 있다.



특별부문 수상자 \_  
임인호 선생  
금속활자장 이수자

금속활자 제작 맥 잇는데  
큰 공헌

임인호 금속활자장 이수자는 1987년 고(故) 신영창 선생 서각 사사로부터 금속활자주조 기능을 전수받아 23여년 간 전통문화의 보존과 금속활자 제작의 맥을 잇는데 전념하여 왔으며, 백운화상초록불조지심체요절 복원에 참여하고 백운화상초록지심체요절 하권 38장 조판, 금속활자 주조 및 인쇄기술자 복원,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21종 복원, 독일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금속활자 주조시연, 청주직지축제 주조시연 등을 통해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 및 고인쇄문화의 보존과 홍보에 기여했다.

또한 임 선생은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학교에서 고인쇄문화에 대한 강의와 함께 각종 행사에서 고인쇄문화 체험 및 시연 행사를 주관하여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으며 현 거주지인 충청북도 괴산군에 무설조각실 이라는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금속활자주조의 연구·교육을 통해 전통문화 및 고인쇄문화의 전수와 후진 양성에 기여했다.



직지상 수상자 \_  
정홍택  
출판도시 활판공방 공방장

'활판주조' 등  
고인쇄 발굴 보존에 헌신

정홍택 출판도시 활판공방 공방장은 1956년 조판 회사인 정운사에 입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통 인쇄기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부친도 배화사라는 조판 회사에 근무해 2대째 인쇄, 특히 조판 일을 해 오고 있다. 정 공방장은 청구사와 교통신문사, 평화당인쇄에서 근무했으며, 퇴직 후인 2000년부터는 흩어져 있던 활판기계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을 누볐다. 전라남도 삼례, 제주도, 전국 5대교도소 등 활판인쇄 시설이 남아 있을 만한 곳을 모두 다니면서 지금의 출판도시 활판공방에 있는 시설들을 모았다.

이렇게 정 공방장 활판인쇄를 되살아나게 하는데 크게 공헌했으며, 현재도 일선에서 활판을 주도하고 있다. ☉